

“추미에 대표는 조선소 노동자 면담에 나오라”

STX조선지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 “고용보장 전제로 어떤 협의도 가능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가 3월 27일 ‘인적 구조조정 중단’, ‘고용보장 정상화 대책’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점거했다.

정부는 3월 8일 중형조선소 대책을 내놓고, STX조선에 ‘한 달 내 고강도 자구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는 생산직 임금 75% 삭감, 500여 명 해고를 위한 일방 희망퇴직을 오는 30일까지 발인한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확보한 15척의 수주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STX조선지회는 지난 22일과 23일 경고의 의미를 담아 네 시간씩 파업을 벌였고, 지난 26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STX조선지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회는 항의서한에서 ‘네 번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3600명이던 정규직 노동자가 1,600명으로 줄었다’라며 ‘STX조선은 연간 20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다. 그러려면 2,50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



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회사가 정규직 75%를 해고해서 고정비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미 정규직 임금이 50% 이상 삭감된 상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신 채용해도 고정비 축소의 효용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회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회사와 어떤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TX조선지회는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인적 구조조정 없는 정부 정상화 대책 마련’,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노

조 경남지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형조선소 정부 정책 규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4월 9일 비상임대의원대회를 열어 STX조선과 성동조선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부장은 “오는 6일 창원 시민결의대회, 11일 통영 시민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27일 2차

경남 도민대회를 전개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고 호소했다.

STX조선지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 농성과 함께 당사 주변 거리에서 200여 명 규모로 순환 노숙농성을 벌인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대책위는 천막농성과 함께 매일 저녁 6시 촛불집회를 벌인다.

대법 판결 무시, 정몽구를 위한 노동부

현대·기아차, 지엠 비지회,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 돌입...판결대로 즉시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현대지동차, 기아지동차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지회들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 회장 처벌 ▲현대 기아차그룹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riba케트, 아시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는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받은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법원 판결까지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본의 눈치를 보며 창원공장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4월 20일 서울에서 쌍용차 해고자 워낭소리 올린다

민주노총, 함께 살자 결의대회 열어...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계획 내놔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3월 28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약속 이행, 함께 살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에서 “해고자들은 말라가는 지부장을 밟고, 다른 사람을 밟고 복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며 “쌍용차는 너는 우리 조합원을 시험하지 마라. 복직 약속시한인 2017년 상반기가 지난 지 8개월째다. 선별 복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복직지는 마음이 찢기고, 남은 자는 희망 고문으로 말라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120명 해고자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전원 복직을 목표로 2018년 투쟁의 서막을 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는 4월 서울에서 노조파괴와 구조조정 투쟁사업장을 모아 난



장을 펼 계획이다. 쌍용차 복직 문제를 완강하고 끈질기게 제기하겠다”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노조운동이 앞장서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조직력으로 쌍용차 자본의 성을 허무는 망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단식 중단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달렸다. 최종식 시장과 마힌드라가 열쇠를 갖고 있다. 약속한 시한인 2017년 상반기가 8개월이나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회사가 얘기한 손배가압류 34억 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 족쇄를 끊기 위해 싸우겠다.

4월 20일 서울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워낭소리를 들려주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모두 머리에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이라고 적은 머리띠를 두르고, ‘해고자 전원복직’과 ‘함께 살자’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쌍용차지부 해고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머리띠를 공장 주변에 묶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쌍용자동차는 3월 13일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신규충원 계획을 내놓고 해고노동자 16명에게 개별 면접을 통보했다. 쌍용차지부는 해고자 전원복직계획 제시를 요구하며 조합원 16명의 면접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3월 17일 대상 조합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부 전 간부를 제외하고 면접에 응하기로 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회사에 해고자 전원복직 계획 제시를 요구하며 28일째(3월 28일 기준)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현대차 1차 하청업체, 2·3차 업체에 상습 갑질

재벌개혁 TF, “현대차는 1차 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끊어라”...단기보장 요구에 개발 제품 빼앗아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재벌개혁 TF 참가단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벌개혁 TF는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1차 하청

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상생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묵인하고 방지하면서 중소기업 품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말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다스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명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으로 갔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갑질을 외면하면 감옥에서 재벌 일가 가족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